

설화를 활용한 다문화 가정의 상호문화 소통과 이해*

—한국·중국·베트남을 중심으로—

양민정**

<차례>

1. 머리말
2.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설화 활용 의의
3. 한국·중국·베트남 3국의 설화 비교
 - 1) 한국 <박제상>, 중국 <맹강녀>
 - 2) 한국 <등나무>, 베트남 <빈랑>
 - 3) 한국 <콩쥐팍쥐>, 베트남 <땀 감>
4. 설화를 활용한 다문화 가정의 상호문화 소통 이해 요소
5. 맺음말

<국문초록>

한국에 새로운 가정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와 공존의 시각이 필요하다. 다문화 사회의 통합과 정착의 원점에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간 상호 소통과 이해가 핵심이다. 다문화의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주류자와 타자 간 인식 간극을 최소화하면서 상호 평등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건강한 다문화 가정의 가족 의식 함양에 설화 교육은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설화를 활용한 다문화 가정의 상호문화 소통과 이해 능력 향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문화 가정을 가장 많이 이루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설화를 각각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살피고자 하였다. 먼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설화 교육의의를 살펴 보았고, 다음으로는 양국 간 가족 의식의 제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한국-중국, 한국-베트남 양국 간 유사점을 많이 보인다고 판단되는 설화들을 대상

* 본 연구는 2017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된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과 교수

으로 고찰하였다. 유사한 설화를 지니면서도 양국 간 가족 의식, 가족문화 등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었고, 다문화 가정 구성원간의 상호문화 소통과 이해의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가족 의식은 남녀 애정, 형제애, 자매애, 부부애, 이복자매 및 계모와의 갈등, 모성애, 가문의식 등의 양상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본고는 다문화적 관점에서의 설화 활용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 다문화 가정, 한국.중국.베트남 설화, 가족 의식, 혼사, 열절

1. 머리말

한국에서의 다문화 인구가 4%를 상회함으로써 한국은 이제 명실공히 다문화 국가, 다문화 사회로 명명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은 단일민족으로서의 고유성, 정통성, 단일성, 획일성 등의 속성이 다언어, 다문화, 다민족, 다색 인종 등의 혼합적 공존과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 가는 국제성, 세계성을 지닌 국가로 급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국제 교류에 따른 외국인 등 다각도의 유입 현상이 급증하고 있는 현 다문화 상황은 민족과 문화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물론 가족관의 변화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정착성이 높은 이주외국인에 대한 시선과 인식을 제2의 동포애로 새롭게 바라보고, 부정적이거나 비하적인 선입견을 바로잡고, 공존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가치관의 새로운 정립이 절실해진 새시대적 명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에 새로운 가정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 이해와 공존의 시각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볼 때, 다문화 사회의 통합과 정착을 위해선 다문화 가정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이해와 배려가 필수적 전제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문화의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타민

족, 타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면서 건강한 상호문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 사회적, 문화교육적 장치들은 다양하다.

본고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 간의 상호소통과 이해 향상에 관심을 두고 있는바, 가족 의식 혹은 가족관을 살펴볼 수 있는 그 효율적 연구 대상의 하나로서, 문화의 원형성, 고유성, 전통성, 가치관 등을 담고 있는 고전 문학, 그 중에서도 특히 설화의 텍스트성을 중시하고자 한다.

설화는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로서, 사실이 아닌 사실적인 이야기이며 사실 여부보다도 문학적인 흥미와 교훈 때문에 존재한다.¹⁾ 설화는 현실을 상상력으로 재구성하여 담고 있다. 동아시아권 설화들은 이웃 국가간 서로의 원형적 심성을 파악하고 동질감으로 연대될 수 있는 친근한 소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설화에서 신화를 제외한 전설과 민담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인간들의 삶의 치열함, 지혜, 경쟁, 소망 등을 전설에서는 다소 비현실적, 비극적으로, 민담에서는 현실적, 인간적,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동질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전설, 민담 등의 설화텍스트를 통해 바라보고자 하는 시각의 초점은 여기에 있다. 전설이나 민담을 다문화적 시각에서 분석하며 또 국가 간 상호 비교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 속에서 상호소통 이해의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호 소통 이해 교육에는 주류, 비주류 간 혹은 자아와 타자 간 조화와 융합, 다양한 문화에 대한 공존과 존중의 시각을 교육시킴으로써 상호간 합일된 새로운 문화정체성을 확립해나가기 위한 비전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가정이 있고, 가족의식이 있고, 가족윤리가 있다. 다문화 가정이 새롭게 많이 구성되는 비례에 못지않게 다문화 부부 이혼도 급증하고 있으며, 다문화 한부모 가정도 속출하고 있다는 작금의 어두운 다문화 사회 현상에 주목하면서 본 논제를 구상

1) 장덕순, 『설화문학개설』, 이우출판사, 1972, 31쪽.

하게 되었다.

전설이나 민담은 신이나 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적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하고 보편적이며 민중적 삶을 살고 있는 왜소한 인간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설이나 민담의 설화 내용에 담긴 인간적 삶의 다양한 가족 의식, 가족문화 등에 대한 고찰은 다문화 가정 구성원 간 상호 가족윤리, 가족의식 등의 이해와 소통에 유익한 교육자료가 되리라고 기대한다.

본고는 현재 가장 다수의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한국-중국, 한국-베트남 설화들을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본고는 세 나라의 전설, 민담에 관한 심도있는 구비문학적 학술 연구라기 보다는, 설화를 활용한 다문화 가정의 상호소통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족 의식 교육자료, 즉 한국어교육에서의 상호문화 교육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수준에서 논의 된다.²⁾

연구 텍스트로는 한국, 중국, 베트남 세 나라의 인물 전설(한국<박제상>:중국<맹강녀>, 사물 전설(한국<등나무>:베트남<빈, 랑>), 그리고 신데렐라형 민담(한국<콩쥐팥쥐>:베트남<땀 낄>) 등 세 유형의 설화를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특히 위의 설화들은 가족 관계나 가족 문제에 있어서 다문화 가정 구성원 양국 간 공통분모를 상당히 많이 공유하고 있는 자료로 판단되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2) 양민정, 「민담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12(4), 한국의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 2008.

양민정, 「효부 설화를 활용한 결혼이주 여성의 가족의식 교육방안 연구」, 『세계문화 비교연구』 37, 2011.

양민정, 「다문화교육 관점의 여성설화의 서사적 전통 연구」, 『외국문학연구』 57, 한국의국어대 외국문학연구소, 2015.

2.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설화 활용 의의

설화는 그 민족의 삶을 두루 관통하는 민족성 또는 지역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장르이다. 사회 전반의 문제와 문제 해결 지점을 정서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교육에서 문화의 개념이 중요한 것은 문화가 소통, 곧 상호 이해와 동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설화 중 신화를 제외한 전설, 민담은 주로 민중들의 삶의 이야기로서 그 내용엔 민중들 간의 소통의 양상을 담고 있다. 작금에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구축 및 해체에 바로 소통과 단절의 차이에서 연유된다고 볼 것이다. 설화라고 하는 고전 텍스트에는 현대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현실적응적 가치관의 형성과 소통의 방법들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설화 활용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설화 활용은 다문화 교육적 의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민족과 교류하고 타문화를 수용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상호 경계선을 제시해줌으로써 국제적 감각과 유연성 있는 자기 정체성 확립에도 기여한다. 설화 텍스트는 우리의 역사적 다문화 양상을 상징적 혹은 실질적으로 드러내주는 동시에 타문화와 이민족을 수용하는 자세와 지혜를 일깨워주는 적절한 교육 자료로 평가될 수 있다.³⁾

설화 속의 다문화 양상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나 지혜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다문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할 때 타문화에 대한 인식도 수용성과 유연성을 갖게 된다고 본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설화 활용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다르게 평등하게 소통하며 살기 위한 이해 능력을 키워주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설화의 한 갈래로서의 전설과 민담은 신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

3) 최혜진, 「다문화시대의 설화 교육 시론」, 『문학교육학』 26, 259~260쪽.

라 민간에서 전해지는 인간과 인간의 행위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신화와 큰 차이점이 있다. 전설에는 실제사건과 관련된 것도 있으나 믿기 힘든 기이한 내용, 비밀상적이고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는 기이함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이함을 진실인듯 뒷받침해주는 장치로 증거물이 제시된다는 장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자아와 세계, 세계와 인간의 대립구조 속에서 자아 또는 인간이 패배하는 비극적 세계인식을 보인다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전설에서 보이는 증거물은 국가적, 민족적 특성을 갖는 신화와는 달리 지역적 공감대를 보이는 선에서 한계가 있다.⁴⁾

민담은 전설과는 달리 사실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상상력을 마음껏 동원하여 흥미진진하게 스토리를 엮어나가는 이야기이다. 등장인물들은 전설에서처럼 나약하고 왜소한 인간군이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기이한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비극적 좌절을 경험하는 전설의 인간군과는 달리, 인간적 지혜, 근면함, 소박함, 진실성, 선행 등의 적극성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부와 결혼과 신분 상승을 두루 획득하는 인간(민중) 승리의 행복한 결말을 보여준다는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다. 즉 민담은 세계적, 보편적, 인간적 이야기를 흥미와 교훈성을 곁들여 권선징악적 인간 승리의 결말을 잘 보여준다는 장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⁵⁾

전설은 독특한 방식으로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바, 전설의 존재방식은 민족 역사를 풍부하고 다양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역사의 자료를 보충하여 주기도 함으로써⁶⁾ 결혼이주여성은 모국의 전설 교육을 통하여 역사성과 문학성을 함께 숙지하게 되고 배우자 나라 한국의 그것과 비교하는 관점도 습득하게 될 것이다.

4) 강등학 외,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2005, 월인, 160쪽.

5) 강등학 외(2005), 위의 책, 165쪽.

6) Le Chi Que, 『베트남 전설의 양상』, 『비교민속학』 18, 2000, 60쪽.

민담은 세계성, 보편성, 민중성, 흥미성, 교훈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는 만큼, 양국 간 민담 비교를 통해서선 선행, 지혜, 근면, 정직 등의 삶으로써 부귀와 결혼과 벼슬에 대한 소망과 그 성취를 이루어내는 ‘고난과 행운’의 반복 구조 속에서 ‘행복한 결말’을 성취해 내는 민중의식의 승리⁷⁾를 간접 체험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본고에서 제시된 설화텍스트의 활용은, 여러 인물형의 행동 양상을 통해 다문화 가정 구성원 간의 제 문제를 직시하게 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 상호 간에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접근하게 하면서, 다문화 사회라는 역사적 현실 안에 존재하는 실존적 자각을 일깨워주는 문학텍스트로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3. 한국·중국·베트남 3국의 설화 비교

본 장에서는 한국, 중국, 베트남 등 세 나라의 전설, 민담을 한국-중국, 한국-베트남 양국 간 중심으로 상호 비교분석하면서 설화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6편 각 작품을 크게 인물전설, 사물전설, 신데렐라형 민담 각 2편씩 세 유형으로 먼저 순차적 서사단락으로 제시하겠다.

1) 한국〈박제상〉: 중국〈맹강녀〉

(1) 한국 〈박제상〉⁸⁾

① 박제상은 신라시조 혁거세의 후손이다.

7) 조동일, 『민담 구조와 그 의미』,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80, 147쪽.

8) 이민수 역 『삼국유사』 권1, ‘김(박)제상’, 을유문화사, 1984, (제상의 성을 <삼국사기>에는 박제상으로, <삼국유사>에는 김(박)제상으로 기록된 바, 박제상의 가계도는 신라 혁거세의 후예로 기술되고 있는 기록에 의거하여, 본고에서는 박제상으로 한다).

② 제상이 벼슬에 나아가 삼랑주간이 되었는데 고구려와 일본에 인질로 보내졌던 보해와 미해를 그리워하는 놀지왕이 왕자들을 데려오도록 명하였다.

③ 박제상은 고구려에 사신으로 들어가 왕을 설득하여 보해를 모시고 돌아왔다.

④ 놀지왕은 왜국에 가 있는 미해도 보고 싶다 하였다. 제상은 집에 들르지도 않고 즉시 울포에 나가 왜국으로 갔다.

⑤ 제상의 아내가 포구로 달려갔으나, 남편은 배 위에서 손 흔들기를 멈추지 않았다. 왜왕에게 신임을 얻은 박제상은 그들을 안심시킨 다음 안개 낀 날을 택해 미해를 신라로 탈출시키고 자신은 남아 스스로 붙잡히게 되었다.

⑥ 온갖 회유와 고문으로 왜왕은 자신의 신하가 될 것을 권했으나, 신라의 개가 될지언정 왜국의 신하가 될 수 없다는 박제상의 말에 불태워 죽이고 말았다.

⑦ 왕은 제상의 처를 책봉하여 국대부인으로 삼고 그의 딸로써 미해공의 부인으로 삼는다

⑧ 제상의 부인은 사모하는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세 딸을 데리고 치솔령에 올라가 왜국을 바라보고 통곡하다가 죽었는데 부인은 망부석이 되었다/딸들은 새가 되어 날아갔다.

설화 <박제상>은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 인물, 망부석 증거물, 비극적 헤어짐과 죽음 등 전설의 구조와 구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그와 그의 아내의 순절을 바탕으로 <삼국사기>에서는 역사적 사실 위주로, <삼국유사>에서는 설화적 구성을 갖추고 있어서 역사성과 문학성이라는 전설의 장르적 특성을 동시에 잘 구비하고 있는 텍스트이기도 하다.⁹⁾ <박제상>은 문헌설화, 구비설화 등 자료가 풍

부하며 다양한 전승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성격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바,¹⁰⁾ 본고에서는 자료 확보의 편의점도 고려하여 문헌설화 텍스트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박제상>은 남편의 ‘충절’과 부인의 ‘열절’이 연쇄적으로 반응, 증첩된다는 특징이 있다. <삼국사기>에는 충절의 실현에 박제상의 외교능력이 중시되었고, <삼국유사>에서는 지략과 담력이 중시되었다. 중국에서 보헤 왕자를 성공적으로 귀환시키고 다시 일본에 억류된 미해 왕자의 귀환을 위해 집에 들르지도 않고 즉시 일본으로 떠난바, 박제상은 국가적 충성심이 최우선이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럼에도 급히 달려나온 부인을 바라보며 배 위에서 흔드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는 묘사에서는 박제상의 깊은 가정적, 부부애적 고뇌도 동시에 읽을 수 있다.

박제상이 왕을 향해 두 번씩이나 목숨을 담보한 충절을 보였던 것과 맥을 같이 하여 부인 또한 남편을 향한 애절한 사랑과 변치 않는 절개도 그 의미를 함께 연관짓게 된다. 요컨대 임금을 향한 남편의 충절을 기점으로 남편을 향한 아내의 열절이 중층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박제상 부인은 눌지왕의 보은으로 국대부인으로 추대되고 둘째 딸도 미해공의 부인으로 왕실가족이 되었으나, 제상을 떠나 보낸 아내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견딜 수 없어 세 딸을 데리고 치출령에 올라 높은 바위 위에서 멀리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비탄한 나머지 그 바위 위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리하여 뒷날 이 바위를 망부석이라 하였다.¹¹⁾ 또한 다른 구전으로는 죽어서 ‘치’라는 새가 되고 같이 기다리던 세 딸은 ‘술’이라는 새가

9) 본고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위한 상호간 설화교육적 요소를 찾는 연구이므로 자료 텍스트의 전승적, 역사적 측면 등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10) 류경자, 『<박제상 설화>의 전승적 측면에 따른 성격과 의의』, 『한국민족문화』 46, 2013.

11)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되었다고 한다. 부인과 세 딸이 죽어서 새가 된 것은, 멀리 날아서 그리운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날개가 달려 공간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초월하면서 사랑은 면면히 이어지는 것이며, 살아서 바다 건너로 떠날 수 없는 한을 죽어서 새가 되어 만나고자 하는 점에서 한국인의 가족애가 절절히 표출되어 있다. 딸이 아버지를 만나고자 새가 된 것도 죽음을 건너 이어지는 부녀간 사랑과 그리움인 것이다.

망부석은 역사적 전승상황에서 볼 때 열녀를 나타내는 상징물이 된다.¹²⁾ 결국 망부석 설화의 연원은 신라 박제상 아내의 죽음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죽음은 오로지 남편에 대한 일편단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제상 아내의 죽음은 정조에 대한 관념적 열이라기 보다는 사랑과 情義에 대한 애정적 열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조선조 열녀 전승이 가지는 획일적인 열녀들과 구분되는 것이기도 하다.

삼국시대의 열녀는 조선시대의 열녀와는 다른 특성과 의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녀들은 자신의 행위에 열녀적 가치관을 부여해 행동하지는 않았다. 삼국시대에는 여성의 수절이 과부에게 부과된 의무도 아니었고, 자유로운 혼인이 사회적 금기도 아니었으며 열행의 수행이 규합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러한 사회적 환경 하에서 순전히 남편에 대한 사랑과 신뢰에 기인한 다양한 열행은 인간의 삶을 더욱더 가치있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¹³⁾

12) 강진옥, 「열녀전승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본 여성적 대응양상과 그 의미」,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한국고전여성문화회, 월인, 2002, 63쪽.

13) 손경희, 정무룡, 「삼국시대 열녀형 설화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17, 2003, 132쪽.

(2) 중국 〈맹강녀〉¹⁴⁾

① 맹강녀는 진시황 때의 여인. 신혼 초에 남편 범기량이 만리장성 공사에 끌려가게 되었다.

②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맹강녀는 엄동설한에 남편이 입을 옷을 지어 몇 달을 걸러 만리장성에 도착하였으나 남편은 이미 죽었고 더욱이 남편의 시신도 장성 성벽 밑에 묻혀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③ 맹강녀가 이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하자 성벽 800리가 무너져 내리며 수많은 유골들이 드러났다.

④ 맹강녀는 각각의 유골에 손가락을 깨물어 핏방울을 떨어뜨려 마침내 남편의 시신을 찾아냈다.

⑤ 이때 진시황이 맹강녀의 미모를 보고 그녀를 첩으로 삼고자 하였다

⑥ 맹강녀는 진시황이 친황다오에 가서 남편 범기량을 위해 상복을 입고 제사를 지내 줄 것을 전제로 요구하였다.

⑦ 진시황이 이에 응하며 범기량의 제사를 마치자 맹강녀는 남편의 시신을 받쳐 들고 바다로 뛰어 들어 자결하였다.¹⁵⁾

맹강녀는 역사적 인물은 아니지만 진시황제라는 역사적 인물이 핏흔하는 상대 남자로 등장함으로써 증거성, 역사성을 일정 확보하고 있는 인물 전설에 해당한다. <맹강녀>는 그 당시 시황제의 <진시황장성>의 폭정으로 인한 민중들의 고통과 비극을 표출한 이야기로서 그 중심에 남편에 대한 맹강녀의 정절을 주제로 하고 있다. <맹강녀>는 2500여년에 걸쳐 중국전역에 두루 전해지고 있다. 장르에 있어서도 강창, 소설, 속곡 등으로

14) 김철, 『연행록 중의 맹강녀 전설 기록 양상 소고』, 『민족문화연구』 63, 2014, 163~164쪽 참조.

15) 이본에 따라서는, ‘맹강은 남편의 해골을 찾아가지고 산에 올라 남편 떠난 쪽을 향해 울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바위가 되어 버렸다. 망부석이라 불렀다’고 되어 있다. (김철(2014), 위의 논문, 173쪽.)

다양한 형태로 변화, 확장되면서 전승되고 있다.¹⁶⁾

<맹강녀>는 이미 죽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통절한 사랑의 방법과, 살아있는 진시황의 성 꺾박에 대한 자결로의 대응과 항거를 보여주고 있는, 두 남성 사이의 한 여성의 이중적 열절을 표상하고 있는 설화이다.

첫째, 엄동설한임에도 몇 달씩 걸려 남편의 겨울복을 손수 지어 만리장성 공사현장을 찾아가는 맹강녀의 일차적 애정담이다. 여성의 몸으로 많은 위험과 고난과 계절적 맹추위를 모두 감내하는 열정적, 주체적, 능동적으로 남편에 대한 신의와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남편은 이미 죽었고, 더욱이 남편의 시신이 성벽 밑에 묻혀 찾을 수도 없다는 청천벽력의 소식에 접하게 된다. 아내의 통곡소리에 성벽 800리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그 통곡소리가 너무도 절절하여 하늘까지 닿아 움직였다는 뜻이 된다. 셋째, 맹강녀는 유골들에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핏방울로 남편의 시신을 찾아낸다. 현재의 유전자 검사와 같은 의학적 지혜를 발휘하여 남편을 찾아낸 것이다. 죽은 남편과의 영혼적 재회의 장면이다. 넷째, 진시황의 맹강녀에 대한 첩흔 꺾박이다. 맹강녀는 남편에 대한 제사를 먼저 지내라고 진시황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는 척 시간을 버는 지혜를 발휘한다. 황제가 공사장 인부였던 남편에게 제사를 드리게 요구하는 것도, 맹강녀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도 거의 비현실적 상황이지만 여기서는 맹강녀의 강렬한 열절로 인해 통과되고 있다. 다섯째, 진시황의 제사를 받은 후, 맹강녀는 남편의 시신을 받들어 들고 앞 바다로 투신한다. 이러한 투신 장면은 진시황에겐 대반전의 시점인 바, 맹강녀에겐 폭정의 황제를 회화화시키며 항거하는 반면, 죽은 남편의 위상을 바로 세우주며 열절을 구현시키는 최상의 표상이라 하겠다.

<맹강녀>의 결말은 진시황장성의 폭정의 폭로와, 권력형 훼손 꺾박에

16) 김철(2014), 위의 논문, 172쪽.

대한 항거와, 궁극적으로 이미 죽은 남편에 대한 애끓는 사랑과 절개 등을 주제로 녹여 형상화되어 있다.

2) 한국 <등나무>: 베트남 <빈, 랑>

(1) 한국 <등나무>

- ① 신라시대 한 마을에 예쁜 두 딸이 살고 있었다.
- ② 자매는 둘 다 이웃에 사는 한 화랑을 남몰래 짝사랑했다.
- ③ 화랑이 전쟁에 출정하게 되자, 언니와 동생이 각각 몰래 화랑을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마주쳤다.
- ④ 그제야 둘이 한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갈등을 겪던 자매는 함께 연못에 몸을 던졌다.
- ⑤ 죽어서 두 몸이 칭칭 얽힌 등나무가 되었다.
- ⑥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화랑이 이 사실을 알고는 같은 연못에 몸을 던져 팽나무가 되었다.
- ⑦ 셋이 죽은 물가에 팽나무가 자라나고 그 팽나무를 등나무가 감고 올라가 자라났다.¹⁷⁾

유래담은 전설의 영역에 속한다. 전설은 민담과 달리 우연이나 원조자의 도움을 배제하는 폐쇄성을 갖기에 식물 유래담도 현실에서의 좌절이 결말이 되는 비극성의 구조를 갖게 된다.

<등나무>전설에 대해 조홍윤은, 동일한 한 남자를 사랑한 자매가 사랑의 좌절로 비극적 죽음을 택한 나무 유래담, 전체적으로 매우 짧은 이야기임에도 그 서사가 그려내는 형상은 놀랍도록 강렬함, 착하고 여린 자매에게 주어진 모진 운명과도 같은 사랑,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란히 물속

17) 임대순 구연, 조동일, 임재혜 조사, <등나무가 된 자매>, 『한국구비문학대계』 7-1, 77쪽.

으로 뛰어드는 자매의 모습, 자매가 죽어간 자리에 돌아난 등나무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전형적 인물과 비극적 사건, 강렬한 이미지가 주는 울림, 형제 갈등의 원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야기 등으로 논하고 있다.¹⁸⁾

자매가 같은 대상의 남성을 사랑하게 된 점, 즉 자매의 욕망이 충돌함으로써 벌어지는 갈등문제에 먼저 주목하고, 대상의 죽음으로 인해 이루지 못한 사랑의 비극성에 초점이 있다.¹⁹⁾ 또한 남성도 본인으로 인한 두 자매의 동반 자결에 충격을 받아 두 자매와 같은 연못에 투신함으로써 사랑의 비극성이 이중적 구조로 강조되고 있다. 두 자매는 사랑의 좌절 때문이었다면, 남성은 본인도 인지하지 못했던 두 자매 간 사랑의 대상이었음과 그녀들의 포기된 죽음을 알고 목숨을 던져 그 자책감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두 자매가 사랑의 좌절로 동반자결을 택한 점에 있어서는 그것을 갈등으로 보다는 사랑의 승화의 한 형태로 보고자 한다. 두 자매는 사랑의 좌절에 직면하여 어떤 갈등이나 대립이나 욕망적 쟁취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남성의 뒤따른 자결도 자신을 향한 자매 간 사랑에 대한 자책감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행동이라 보겠다. 그래서 사랑의 공유 갈등은 경쟁이나 모함이나 투쟁이나 쟁취 등을 시도하지 않고 동반자살로 승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자매에의 극한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 세 남녀의 자결적 죽음이 현생에서 끝난 게 아니라 등나무, 팽나무 등 식물로 환생되었다는 점에서 애정의 더 깊은 상징적 울림을 갖게 된다. 자매가 물에 빠져 죽은 자리에 자라난 등나무의 형상. 이리

18) 조홍윤, 「〈등나무전설〉에 형상화된 형제 갈등의 원형 연구」, 『겨레어문학』 57, 겨레어문학회, 2016, 399쪽.

19) <등나무전설>은 기본형과 확장형 두 형태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중국의 <빈, 랑 전설>과 상응하는 서사와 구조를 보이는 확장형을 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저리 얽혀 있는 등나무의 모습은 그 자체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의 상징성과 함께, 죽어서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승화된 자매애의 표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등나무는 본 전설의 증거물로서의 서사의 전체적인 의미를 온전히 하나의 이미지로 응결해 내고 있다.²⁰⁾ 또한 뒤따라 죽은 남성이 팽나무로 되었을 때 등나무가 그 팽나무를 감싸고 올라갔다는 형상에서, 한 남성을 중심으로 한 자매의 동시적 사랑의 영원성을 깊이 상징하고 있다. <등나무>에서는 자매가 동반죽음으로 남성에 대한 열을 지키고자 했듯이, 남성 또한 뒤따른 죽음으로 두 자매에 대한 남성적 열을 보여주고 있어서 남녀 상호 열절담이 담긴 식물유래담이라 할 수 있다.

(2) 베트남 <빈, 랑>²¹⁾

① 상고시대에 한 왕자가 있었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빈과 랑이었다. 둘은 너무 닮아 분간이 어려웠고, 열에닐곱 살 때 부모를 잃었다/ 빈 랑 형제는 스승을 찾아가 공부하였다.

② 스승에겐 빈랑 또래의 딸이 있었다. 그녀는 결혼은 하고 싶었지만 형과 아우를 분간할 수 없어, 죽 한 그릇과 젓가락 한 짝을 두 사람에게 주고는 두 사람을 관찰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을 보고 양보하는 사람이 동생일 줄 알았다/ 스승의 딸은 형과 결혼을 한다.

③ 부부의 정이 깊을수록 형이 아우를 대하는 태도가 소홀해졌다.

④ 서운함을 느낀 아우는 집을 떠나 갔으나 깊은 강 때문에 건널 수 없어 강어귀에서 울다가 죽게 되었고 나무가 되었다

⑤ 형이 아우를 찾아 나섰으나 이미 죽은 후였고 형도 나무 곁에 투신

20) 조홍윤(2016), 위의 논문, 405쪽.

21) 무경 엮음 박희병 옮김, 『베트남의 신화와 전설』, 돌베개, 2000.

하여 바위가 되어 나무 뿌리가 자기를 칭칭 감게 했다.

⑥ 부인이 남편을 찾아갔으나 남편이 이미 죽은 것을 알고 돌을 안고 투신하여 덩굴(썩우덩굴)로 화하여 바위를 에워 썼는데 그 잎은 맛이 향기롭고 맵사했다.

⑦ 응왕이 순행하다가, 사당 앞의 나뭇잎이 몹시 우거지고 덩굴 잎이 무성을 것을 보고 살폈다. 그 사연(나무, 바위, 덩굴에 얽힌 유래)을 캐물어 알게 되어, 덩굴 잎을 입에 넣어 씹다가 바위 위에 뱉었다. 그 색은 선홍빛이었으며 맛이 썩 좋았다. 천하에 퍼뜨려 심게 하였다. 그 뒤 베트남에서는 혼례 때의 대소례에 이 열매를 예물로 쓰도록 하였다. 이것이 빈랑 열매의 유래이기도 하다.

<빈랑>도 빈랑열매의 유래담인 전설의 영역이다. <빈랑>에선 아우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고 여긴 형이 자책감으로 아우 뒤따라 죽음을 택하였고, 특히 아우의 죽음의 원인이 자기 부인에 대한 애정갈등이 잠재되어 있었음을 깨달은 형의 이중적 자책감이 있었다. 형제 간 갈등의 중심에 있던 형의 부인도 자신의 책임을 느끼고 뒤따라 죽음을 선택하였다. <등나무>에선 자매 동반 죽음-화랑 죽음-등나무, 팽나무로의 환생의 구조인 반면, <빈랑>에선 아우-형-형의 부인 순차적 죽음-나무, 바위, 덩굴로의 순차적 환생이라는 중층적 구조를 보인다.

두 전설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두 이야기의 이면에 담긴 상징적 의미는 각 민족 간 분명한 사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빈랑>에서 여자의 부모는 애통해하며 이들이 죽은 곳에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고, 당시 사람들은 형제 우애와 부부 절의를 칭찬했다. <등나무>에서 자매의 사랑은 유교적 사회 질서 속에서의 권력자에 의해 좌절되거나 하는 등의 외적인 상황과의 갈등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므로 그

들의 죽음은 내적인 갈등의 해소를 의미한다. 그들의 내적인 갈등이란 자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심정, 즉 간절함, 원망, 애정, 배려, 우애, 질투, 포기 등을 의미하며 그것은 한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즉 한국의 등나무는 비극적 상황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결말이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은폐되거나 부정당할 수 있는 그들의 감정이 정당함을 항변한다는 점에서 수동적 적극성이라는 한국 민중의 생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²²⁾

나무와 열매로서 각각 형상화된 이미지의 본질에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등나무>는 주어진 비극적 운명을 자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얇고 약한 등나무 줄기들이 서로 자신의 자매를 휘감아 하나의 굵고 힘있는 다발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 된 힘으로 하늘을 향해 올라가듯이,²³⁾ 비록 많은 욕망의 대상을 공유하며 갈등하게 되는 자매이지만 현생에서의 갈등과 욕망의 관계를 동반죽음으로 승화시켜 그 생명을 비록 다른 형태로나마 연속시켜 함께 묶여서 서로에게 성장의 힘을 제공하면서 사랑을 공유하는 자매임을 표상하는 것이다. 팽나무를 감싸며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죽어서도 남자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고 있는 두 자매의 열의 상징이라 하겠다.

<빈,랑>은 한 여성을 중심으로 한 형제간 갈등이 형제간 우애로 변모하면서 비극적 좌절과 생명의 자발적 포기까지 감행하는, 그리고 그 세 남녀의 한이 집중되어 바위, 나무, 넝쿨 등 열매로 환생하여 남녀 결연의 상징예물로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어 있다. 즉 전설의 증거물은 해당 지역

22) 강종임, 『설화를 통해 본 중국과 한국의 사유 특성 - 사상목의 형상을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30집, 53쪽.

23) 조홍윤(2016), 위의 글, 415쪽.

의 지역성을 강조하는 속성에 비해, 빈,랑 열매는 거국적 민족성을 띠는 증거물로도 확장되어 있는 독특한 전설이다.

3) 한국 <콩쥐팥쥐>: 베트남 <땀 껌>

(1) 한국 <콩쥐팥쥐>²⁴⁾

① 콩쥐는 전처 소생, 팥쥐는 후처 소생이다

② 계모는 콩쥐에게 나무 호미로 밭 갈기를 시키나 호미가 부러져 울고 있다/ 콩쥐 생모영혼인 검은 황소가 하늘에서 내려와 밭을 갈아 준다

③ 계모는 다시 조 석 섬, 며 석 섬을 짓기, 밭 빠진 독에 물 채우기, 밭 빠진 술에 밥한 후 외갓집 잔치에 뒤따라 참석하라 하다/ 두꺼비, 구렁이, 새떼가 나타나 도와준다

④ 콩쥐에게 검은 황소가 옷과 신발, 가마, 하인을 마련해 주고, 콩쥐는 가마를 타고 외갓집에 가던 중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다/ 감사는 신발 주인을 찾아 결혼하고자 하는데, 팥쥐에겐 신이 작고 콩쥐에게 맞아 결혼하다

⑤ 팥쥐는 콩쥐를 유인하여 연못에 밀어 넣어 죽이고 콩쥐 행세를 하며 감사와 살다

⑥ 콩쥐는 연못에 꽃 한 송이로 환생하고 감사는 그 꽃을 꺾어 문 위에 꽂아두지만 이 꽃에 의해 괴롭힘을 받던 팥쥐는 꽃을 아궁이에 넣어 버리다

⑦ 콩쥐는 빨간 구슬로 변신하였다가 이웃집 노파에게 발견되고, 노파의 주선으로 감사와 재회하다

⑧ 감사는 팥쥐를 죽여 그 살로 국을 끓여 계모에게 보내어 먹게 하거나 젓갈을 담가 계모에게 보내어 먹게 하다/ 계모는 이 사실을 알고 데굴 데굴 구르다 쓰러져 죽다

2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1~9), 1984, 460~466쪽.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대표 신데렐라형 설화 <콩쥐팥쥐>는 전처 딸과 악한 계모 및 그 딸 사이에 고귀한 신분의 남자와의 결혼을 중심에 두고 일어나는 계모담과 혼인담의 혼합형 민담이다. 전처 딸 콩쥐에게 감당하기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계모,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서 도와 주는 1차엔 망모의 영혼인 검은 황소, 2차엔 두꺼비, 구렁이, 새때 등의 개입이 있다. 또한 검은 황소는 콩쥐가 외갓집 잔치에 참여하도록 옷, 신발, 가마, 하인 등을 마련해 줌으로써 콩쥐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2회나 준다. 높은 신분 감사와의 혼인에 신발 주인공 찾기 모티프가 등장하고 콩쥐가 선택됨으로써 팥쥐의 질투와 음해가 시작된다. 팥쥐의 유인으로 연못에 빠져 죽은 콩쥐가 한 송이 꽃으로 환생하고, 팥쥐에 의해 다시 아궁이에 던져진 꽃(콩쥐)은 빨간 구슬로 변신하였다가 노파의 주선으로 감사와 재회한다.

콩쥐와 계모 사이의 악한 계모담은 혼인담 이전까지만 등장하며 계모는 사라지고 결말에만 등장하는 한편, 혼인담부터는 콩쥐와 팥쥐와의 이복 자매간의 치열한 투쟁만이 등장한다. 팥쥐는 그 어미의 악행을 본받아 감사와의 혼인에서 콩쥐를 제치고 성취하려고 신발 주인인 체 거짓 꾸미기, 콩쥐를 연못에 밀어 넣어 죽이고 대신 콩쥐, 즉 부인인 체 하기, 환생한 꽃을 아궁이에 넣기 등 그 어미보다 능한 악행을 서슴지 않는다. 즉 계모와의 갈등, 이복 자매 간의 혼사 갈등이 작품의 중심이 되고 있다.

여기에 다른 한 축의 중심에 혼사 대상인 감사가 있다. 감사는 처음에 신발 주인공을 찾아 콩쥐와 혼인하고, 죽은 후 환생한 꽃을 문 위에 꽂아 두고, 노파의 주선으로 결국 인간으로 화해서 부부 재회한다. 감사는 계모 모녀를 잔인하게 응징한다.

연꽃과 구슬로의 환생. 망모의 검은 암소 환생 등 초자연적 요소, 초자연적 인물의 등장 등 환상적 수법은 신비감뿐 아니라 착한 일을 하는 사

람에게는 하늘이 돕고 복을 주며,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벌을 준다는 당대 민중들의 세계관과 행복에 대한 지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고통과 억압 받는 민중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역경을 이겨내는 인내력과 고난을 극복하는 의지력을 주는 기능도 있다.

신발주인을 찾던 감사가 콩쥐 외가의 잔칫집에서 찾게 되어 콩쥐와의 행복한 결혼을 성사시키는 장소가 생모의 본가인 외가인 것은 생모의 영혼인 검은 암소의 설정, 즉 망모의 녀과 맞닿아 있다. 즉 지극한 모성애의 발로라 할 수 있다.

(2) 베트남 <땀 낄>²⁵⁾

① 리조 성종 때 땀은 전처 소생, 낄은 후처 소생이다

② 계모는 땀과 낄에게 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을 언니로 삼겠다 하다. 낄은 땀이 잡은 물고기를 가로챈다. 낄은, 부처가 땀에게 한 마리 남은 붕고기를 연못에 키우라고 한다. 낄은 땀이 나간 사이 붕고기를 잡아먹는다.

③ 땀은 부처가 가르쳐준 대로 붕고기의 뼈를 4등분하여 침대의 네 다리 밑에 묻고, 백 일 후에 파보니 장신구와 옷과 신발이 나온다

④ 땀이 신발 한 짝을 씻어 물소 뿔위에다 말리는데 까마귀가 땀의 신발을 태자의 궁궐에 떨어뜨린다

⑤ 신발주인을 찾아 태자비로 삼겠다고 하자, 계모는 낄을 데리고 궁궐에 가면서 땀에게 두 가마니의 검은콩과 흰콩 골라내고 오도록 시키다/ 부처가 두 마리의 비둘기에게 해결시키다

25) 전혜경, 『한국-베트남 설화에 나타난 여성상 및 기층의식 비교연구 -한국의 <콩쥐팍쥐>와 베트남의 <땀 낄> 비교를 중심으로-』, 『베트남 연구』 9, 2009, 134~136쪽 자료. (전혜경은, Nguyen Duy, 1942, 10, 『Truyen co Vietnam』, Xuat ban bon phuong, 24~30쪽을 번역하여 단락 제시하였음)

⑥ 땀은 궁궐에 가서 신발을 신어보고 태자비가 된다.

⑦ 계모는, 아버지의 중병을 핑계로 땀을 집에 오도록 하여 까우나무 열매를 따오도록 시키고 까우나무에 올라간 땀을 떨어뜨려 죽이고 대신 감을 태자비로 들여 보낸다

⑧ 땀은 호아잉호아익새로 환생한다/ 호아잉호아익새는 태자에게 발견되어 땀의 환생임을 알게 된다

⑨ 감은 태기가 있음을 핑계로 호아잉호아익새를 잡아 먹는다

⑩ 태자가 새털을 버린 곳에 죽순이 자라나 있는 것을 보고 정성껏 돌보니 감은 죽순을 잘라먹고 큰 길에 버린다. 죽순껍질은 티나무가 되고, 거지 노파의 기도로 다시 티나무 열매로 쌀항아리 속에서 익혀지던 땀은 거지 노파의 양녀가 된다.

⑪ 거지 노파는 남편의 제삿날에 태자를 만나게 해준다. 찌우읏 씨는 솜씨로 땀을 알아본다

⑫ 땀은 감에게 끓는 물에 목욕했더니 예뻐졌다고 말하자 감은 그대로하다가 테어죽고, 땀은 감의 시체에 소금을 쳐서 계모에게 보낸다. 맛있게 먹고 있던 계모는 딸의 고기임을 알고 혼절하여 죽는다

<땀 감>은 베트남 전역에 분포하는 설화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변이형이 알려져 있는 신데렐라형 이야기이다. <땀 감>에 등장하는 계모는 부처가 전처 소생 '땀'에게 준 봉고기를 잡아 먹고, 나무에 올라간 '땀'을 떨어뜨려 죽이며, 태자비로 '땀' 대신 자기가 낳은 '감'을 들여보내는 등, 전처 소생에 대한 핍박이 가혹하며 극심하다.

주인공 땀은 계모의 딸인 감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연속적인 도움을 받아 태자비가 되지만 다시 상대자 계모 모녀의 방해에 부딪혀 죽음을 맞게 된다, 그러한 행복한 결혼에 대한 간절한 회구로 인해 주인공 땀은 호아잉호아익새가 되어 태자와의 만남을 시도하고, 다시 감의 방

해에 부딪쳐 이별하고, 결국은 티열매 되어 노파의 도움으로 태자와 재결합하게 되면서 끝을 맺는다. 즉 착한 주인공은 초인적 존재의 도움으로 태자비가 되는 행운을 맞는 것이다.

만남과 이별의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인공의 결혼단락에서 베트남은 계모의 난제를 다시 통과해야 결혼에 이르는 것으로 묘사하고 결혼 후에도 만남, 이별의 횟수가 한국보다 많다.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베트남의 <땀 낄>은 <콩쥐팥쥐>에서보다 더 많은 시련을 극복해야만 행복한 결혼을 이룰 수 있으며 또 한국보다 더 여러 차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묘사됨으로써 결혼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온갖 역경과 죽음까지도 극복하는 생명력이 점차 강해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베트남의 적극적인 여성상도 잘 부각시키고 있다.²⁶⁾

두 설화는 간혹 비현실적 요소 있으나 결손가정의 선한 여성이 착한 마음과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지체 높은 남성과 만나 결혼하여 행복을 찾는, 권선징악의 전형적 가정담이다. 주인공의 결혼 상대자로 한국에서는 감사, 베트남에서는 태자로 되어 있어 신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의 감사는 팔귀를 죽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베트남의 태자는 땀과 재회의 역할을 담당할 뿐 징악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은 부권중심사상, 베트남에서는 여성의 적극적 성격, 인과응보사상 차이의 결과라 하겠다.

변신의 대상이 한국은 꽃과 구슬로 2회인 반면, 베트남은 호아잉호아의 새, 죽순, 티나무 열매, 파리 등 4가지이다. 결혼 대상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더 능동적인 모습이 베트남 설화에서 훨씬 강하다. <땀>에서 변신횟수가 많은 것은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서라도 부부가 결합해야

26) 전해경, 김근태(2010), 위의 논문, 753~755쪽.

한다는 베트남 민족의 가족결합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²⁷⁾

4. 설화를 활용한 다문화 가정의 상호문화 소통과 이해의 요소

본 장에서는 3장에서 비교 분석된 설화 교육적 내용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의 상호문화 소통과 이해 요소들을 앞에서 제시된 양국 간 설화작품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박제상> : 충절, 열절, 부부애(부부 윤리), 효, 가문의식

박제상 처의 죽음은 도미부인이나 설씨녀와는 달리 살아서 열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남편에 대한 열절을 증명하였다. 즉 도미처나 설씨녀의 경우처럼 남편의 생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가 아니라, 이미 남편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더 이상의 삶의 명분을 잃고 말았다. 제상의 처는 남편 충절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 자신이 위국대부인으로 봉해지고 둘째 딸은 왕족과 혼인하게 되었으므로 충분히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죽음을 택했다. 그녀의 죽음은 맹장녀의 경우처럼 실절의 위기에 처해서 행해진 것도 아니고, 조선조의 열녀들처럼 관념적으로 관행적으로 남편의 뒤를 따르는 강압적 열을 실행한 것도 아니다. 오랜 세월 한결같이 남편을 그리는 애절한 정과 의리에서 나온 자조적 선택이다.

조선시대 열녀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의리가 없더라도 그들이 자라면서 받아들인 교육과 교훈에 의해 열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제도와 규범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열녀다. 이에 반해, <삼국사기>나 <삼

27) 전혜경(2009), 위의 논문, 144쪽.

국유사>에 실려 있는 열녀형 설화들에 등장하는 열녀들은 조선시대의 열녀와는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많다. 그녀들의 행위는 지향할 ‘열녀 모델’이 있어서 흉내내거나 닮으려하지 않은 독자적이며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그녀들은 주자학적 윤리교육과 여사서류의 열녀 훈육을 받지 않았고, 열녀를 추구하거나 원하지 않는 사회에서 태어났고 생활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열은 순수한 인간애와 남녀의 순진한 성정의 발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⁸⁾

삼국시대의 대표적 열녀의 한 명인 박제상 아내는 이처럼 조선시대의 주자학적 윤리적 관념적 열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순수한 애끓는 마음, 애절한 사랑의 마음에서 결단된 열행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조선후기 일시에 형성된 ‘남편 따라 죽기’에 나타난 죽음의 추구가 우리나라 전통적인 열녀상이 아니라 사랑과 신의를 기반으로 죽음으로써 부부의 의리를 실행한 진정한 열녀상의 정립 의의를 본 전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문화 가정에서 <박제상>은 남편의 충성과 아내의 열절이 서로 합일 되는 일체적 공감대로 형성될 수 있다. 남편이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극한적으로 이별의 순간에 직면하게 될지라도 아내는 사랑으로 열로 감내하며 순응하고, 남편 또한 나라 일 혹은 집 밖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아내 사랑을 잊지 않는 부부애와 가장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전설에서는 담고 있다. 세 딸 또한 엄마와 함께 하여 아버지를 그리워하다 새가 되었다는 슬픈 사부곡은 가족애의 극치를 보여주는 가족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박제상>은 박제상 가문인 영해박씨의 세보에도 박제상의 사적 및 신이한 탄생담이 기록된 바 가문의식도 보여주고 있다.

28) 손경희, 정무룡, 『삼국시대 열녀형 설화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17, 2003, 147~148쪽.

2) 중국<맹강녀>: 여성의 헌신, 지혜, 열절

<박제상>이 신라 눌지왕 때의 왕자들의 해외 억류라는 역사적 사실이 본 전설 형성의 배경이 되었던 것과 같이, <맹강녀>도 중국 진시황 때의 장성 축조라는 역사적 사실이 전설 형성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박제상과 그 아내는 역사적 실제 인물인 한편, 진시황은 실제 인물, 맹강녀는 허구적 인물이라는 차이는 있다. 박제상 아내가 그리움에 지쳐 울다가 죽어서 망부석이 되었다는 점이나, 맹강녀의 통곡소리가 만리장성 800리를 무너뜨렸고 그로 인해 성벽에 묻힌 유골들이 드러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두 여성의 열절의 결과로서 같은 맥락의 의미를 띤다. 그러나 한편, 한국의 박제상은 국가에 대한 충절과 부부애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음에 반해, 중국의 경우 남성은 국가에 대한,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별다른 충과 부부애는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양국 간 남성의 가족의식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맹강녀는 이미 죽은 남편에 대한 열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따뜻한 겨울복을 손수 지어 몇 달을 걸려 찾아가는 모습, 유골들에게 일일이 자신의 손가락 핏방울로 유전인자를 확인하여 결국 남편의 시신을 찾아내는 지혜로운 모습, 진시황의 유혹에 항거하는 지혜, 남편의 한을 풀어주고 진시황 앞에서 보란듯이 남편의 시신을 받쳐들고 장렬하게 바다에 투신하여 진시황 앞에서 반전으로 열절을 실현하는 모습 등은 여성으로서의 능동적, 주체적, 정의적, 열절적인 모든 면이 종합적으로 잘 표상된 열녀의 모습이라 하겠다.

박제상 아내나 맹강녀는 무척 능동적, 주체적, 열 지향적 여성이었으며, 왕의 권위에 대한 거부(왕의 환대나 왕의 회유 거부), 가부장적, 유교적 순종의 자세. 맹강녀의 남편을 찾아내는 방법은 매우 창의적, 감동적, 열

의적 면모라 하겠다.

3) 한국<등나무>:자매애, 남녀 애정, 가부장적 윤리

<등나무>에서 두 자매가 동일한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갈등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가족이라는 사회적 제도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이다.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던 봉건사회에서 ‘가족’은 인륜적 규범을 담은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이다. 자매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 요소가 가족이라는 인륜적 규범이었다면, 그들이 그 틀을 넘어선다는 것은 사회 속에서 소외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유교적 이데올로기는 질투를 통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강요함으로써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²⁹⁾

등나무 이야기에는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어떠한 외적 존재도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두 자매는 내면적인 갈등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이 없었다고 본다. 두 자매가 한 남성을 중심으로 둔 삼각관계를 가족 윤리라는 유교적 사회제도 안에서 극복하거나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동반죽음으로써 나름의 애정을 승화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등나무로의 환생은 자매 갈등이 갈등으로 끝났다가 보다는 자매애로 승화된 새로운 생명력으로 보여진다.

<등나무>에는 남녀 애정, 자매애, 남성의 열, 일부다처제의 금지 등의 가족 문화 요소를 읽을 수 있다,

29) 강종임, 『설화를 통해 본 중국과 한국의 사유 특성 -상사목의 형상을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30, 50쪽.

4) 베트남(빈, 랑): 형제우애, 부부애, 열절, 가부장적 윤리, 여성의 지혜

<등나무>에서는 남성의 두 자매에 대한 자책감으로, <빈, 랑>에서는 형의 아우에 대한 자책감으로 각각, 그 대상들을 뒤따라 자결하고 있다. 한국이나 베트남 공히 남성들의 가부장권적 자존감을 일정 정도 나타내고 있는 설화로 보겠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가부장권적 인식, 아우에 대한 형의 가부장권적 의식이 이러한 자존감 실현의 형상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본다. 한국과 베트남이 가부장권 수직적 사회였음을 반영한 설화 모티프라 할 수 있다. 한편, <빈, 랑>에서 여성이 남편을 뒤따라 스스로 목숨을 던진 것도 가부장권 순응에 따른 절의였다고 본다.

<등나무>나 <빈, 랑>의 남녀 주인공들은 각각 사랑의 성취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했다기보다는, 동일한 욕망의 대상을 공유하면서 필연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자매간’‘형제간’갈등을 운명적으로 내면화시켜 쉽게 포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은 자매애의 극대화, 베트남은 형제우애와 부부간 절의를 표상한 설화의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형제나 자매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차이가 적은 관계이기 때문에, 형제는 동일한 부모의 애정을 욕망하고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획득한다. 필연적으로 그들의 욕망 대상은 동일한 것이 되기 쉬우며 그로 인한 갈등을 운명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³⁰⁾ ‘인간적 윤리’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결과이다. 그래서 연인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이나 다툼도 없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지도 않는다. 자매애만 돋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빈, 랑>에선, 아우가 형이 부인에게만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 섭섭해서 가출하며 또 울다 쓰러져 죽게 된다. 즉 아우의 내면적인 형

30) 조홍윤(2016), 위의 논문, 409쪽.

에 대한 형제적 갈등이 유발되어 가출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어서 <등나무>의 자매처럼 자발적인 죽음은 아니다.

<빈,랑>에서는 특히 여성의 지혜가 돋보인다. 두 형제의 스승의 딸로서, 형과 결혼한 그 딸은 형제가 너무 닳았으므로 죽 한 그릇과 젓가락 한 짝을 형제에게 주고 관찰한 결과 양보하는 사람이 동생이라 판단하고 형과 결혼하게 된다. 이는 유교적 가족윤리에서 형이 먼저 결혼하는 기본법을 준수하는 윤리의식이라 할 수 있다. 그녀는 형제 중 외모나 능력이나 학식이나, 자신에게 애정을 보이거나 하는 환경적 요소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장자 우선이라는 유교적 결혼관을 순종하고 있는바, 장자 선택에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한편, 여성은 지혜뿐만 아니라 열절의식도 돋보인다. 가출한 아우를 찾으러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직접 찾아 나섰고, 죽어 나무가 된 아우 곁에서 투신하여 바위가 되어 아우 나무 뿌리가 자기를 칭칭 감게 했음을 보고, 여성 자신도 돌을 안고 투신하여 덩쿨이 되어 바위를 에워 썼다.

<등나무>에서는 먼저 등나무가 된 자매가 팽나무가 된 남성을 타고 올라가 자라났던 것처럼, <빈,랑>에서도 바위가 된 남편을 여성이 덩쿨이 되어 감췄는데 그 덩쿨잇은 맛이 향기롭고 맵사했다. 두 전설 공히 죽어서도 환생하여 여성이 남성을 감싸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강렬한 열절의식, 주체성, 적극성 등이 남성 우위에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한국이나 베트남에서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 여성의식, 여성성 등을 읽을 수 있다 하겠다.

한편, 빈랑열매는, 왕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색이 선홍빛이었고 그 맛이 썩 좋았다, 먹을 때 입술이 빨강게 물들었다’의 표현에서 시사되는 바처럼 남녀 결연의 이미지와 연상적이다. 뜨거운 사랑의 빛은 선홍색이고 열정적인 애정의 감정은 썩 좋은 맛이어서 왕이 남녀결혼식 예물로 사용

하도록 하게 된 것이다.³¹⁾ 등나무가 개인 차원의 식물에 머물렀다면, 빈랑 열매는 범국가, 사회적 용도의 식물로 거듭났다는 차이를 보인다.

5) 한국 <콩쥐팥쥐> : 가부장권, 계모 및 이복 자매 간 갈등, 신데렐라형 혼사, 모성애, 조력자

콩쥐는 계모의 일방적 학대를 받지만 순종하고 감내하고 마침내 타력에 의해 또는 자력에 의해 난관 극복, 수동적, 소극적, 순종적, 내성적 성격의 여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조선조 전통사회의 이상적 여성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후일담에 구슬로 환생하고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콩쥐의 노력과 성취는 여성의 신데렐라형 혼사의 열망이 반영되고 있다.

계모의 이미지가 이처럼 정형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나를 낳아 길러준 생모에 대한 원천적인 그리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콩쥐팥쥐> 설화에서는 계모의 난제를 죽은 생모의 영혼인 검은 암소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도와주는 데 반해, 베트남 <땀 값>에서는 계모의 난제를 부처가 두 마리의 비둘기를 시켜 도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한국의 모성애적 가족 의식이 돋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전승되어 온 사회문화적 배경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적자 중심의 가문을 중시하여 온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후사의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전처소생과 후처소생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유교적 규범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사회적으로 열의 가치를 높이 숭상

31) 한국의 등나무에도 속신이 전해지고 있다. 즉 등나무의 꽃잎을 말려 지니거나, 그 잎을 삶은 물을 마시면 틈이 생긴 관계가 다시 아물게 된다는 것이다. (최영전, 한국민속식물, 아카데미서적, 1997, 100쪽.)

하고 개가를 금기시하는 풍토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와 같은 사회 문화적 풍토는 전설 자식에 대한 계모와 이복형제의 학대, 악인 계모를 서사화하고 전승하는 데 일조하였을 것이다. 위의 동남아시아의 설화들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만들어지고 전승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부는 애정으로 진정성으로 연합되어야 하고,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중심을 잘 잡고 가정을 제대로 잘 다스려가야 한다는 교훈을 읽게 된다.

계모의 학대를 다룬 위의 설화들은 가부장적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족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의붓자식의 보상심리, 생모에 대한 원천적 그리움, 유교적 규범을 강조하였던 사회문화적 풍토가 이러한 설화와 아시아인의 가치관을 형성하였다.³²⁾

6) 베트남 <땀 값>: 계모 및 이복 자매 간 갈등, 신데렐라형 혼사 갈등, 열절, 장자. 장녀 중시 가족관

베트남의 경우, 능동적 여성상을 보이는 <땀 값>과, 한국에서 부권 중심사회를 기반으로 수동적인 여성상을 보이는 <콩쥐팥쥐>는 여성상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동일한 신데렐라형 혼사담인데도 콩쥐는 꽃과 구슬이라는 두 번의 환생으로 성취시키는 반면, 땀은 4번의 환생이라는 훨씬 더 많은 통과례를 거쳐 혼사를 이루는 점에서도 양국 간 가족 윤리, 신데렐라형 혼사 갈등, 열절의식 등에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또 콩쥐는 망모의 영혼인 검은 황소의 도움으로, 땀은 부처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한국은 모성성에, 베트남은 종교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 양국 간 설화 모두 민담의 공식인 권선징악적 주제에 바탕한 혼사담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의 경우 전설

32) 윤승준, 「설화를 통해 본 아시아인의 가치관」, 『동양학』 8, 2001, 17쪽.

소생과 계모 갈등 중심으로 가족제도와 윤리의 유지에 주제가 맞추어져 있다면, 베트남의 경우에는 개인적 악행의 징계와 부부간의 애정에 주제 놓여 있다.

베트남의 <땀 감>은 작품의 서두에 '고기를 많이 잡은 사람을 언니로 삼겠다'라는 묘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처소생과 계모소생의 대립 보다는 딸과 차녀, 즉 우리나라의 장자와 차자 관계에 비견되는 이복자매 간의 갈등양상이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된다. 장자, 장녀 중시사고의 유교적 가족관은 양국 간 공통적이다. 양국 설화 모두 결핍된 상황에 처한 주인공의 신분상승과 권선징악을 표층에 드러내는 공통점이 있으나 한국은 계모의 학대에 대한 경계 중시, 베트남은 부부 결합을 방해하는 감의 악행을 제어하고 땀과 태자의 결합을 희구하는 강한 의지와 인과응보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환생 또는 변신은 결혼이주여성(혹은 남성)에겐 이주의 내면적 계기가 된다. 결혼을 계기로 이주하여 신데렐라와 같은 신분 상승으로 변신되는 환상적인 결혼생활을 꿈꾸게 된다. 한국-베트남 간 다문화 구성원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전통문화의 충돌, 가족문화 혹은 가족관, 여성성, 문화적 가치관, 등이 양국 간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다른지를 이해시키고, 다른 점에 대한 소통 방법을 교육시킨다면 문화적 충격이나 갈등은 훨씬 감소될 것이다. <콩쥐팥쥐>나 <땀 감>민담은 다문화 가정 구성원 간의 상호 가족문화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는 한편, 가족 의식과 결속이 향상된 결혼생활을 가꾸어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족관계를 구축하는 데 유익함을 주는 설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5. 맺음말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설화를 활용한 다문화 가정의 상호문화 소통과 이해의 요소들을 고찰하였다. 연구대상 자료로는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많은 중국과 베트남의 설화들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양국 간 관계 속에서, 한국어교육의 문화교육 연구관점으로 논의하였다.

한국-중국, 한국-베트남 양국 간 유사한 구조와 주제를 가진 전설이나 민담 등 설화들을 다문화적 시각에서 분석하며 상호 비교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 속에서 상호문화 소통 이해의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문화 가정의 중심에는 양국 출신의 가정이 있고, 양국 간 가족의식이 있고, 가족관이 있다. 다문화 가정이 새롭게 많이 구축되는 비례에 못지 않게 다문화 부부 이혼도 급증하고 있으며, 다문화 한부모 가정도 속출하고 있다는 작금의 어두운 다문화 사회 현상에 즈음하여, 본고는 다문화 가족문화의 상호소통과 이해 능력을 고취시켜 통합된 다문화 가정, 다문화 사회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2장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설화 활용 의의를 살펴 보았다.

설화 속의 다문화 양상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나 지혜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즉 다문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할 때 타문화에 대한 인식도 수용성과 유연성을 갖게 된다고 본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설화 활용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다르게 평등하게 소통하며 살기 위한 이해 능력을 키워주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3장에서는 한국, 중국, 베트남 3국의 설화(전설, 민담)를 비교하였다. 한국<박제상>:중국<맹강녀>, 한국<등나무>:베트남<빈, 랑>, 한국<콩쥐 팥쥐>: 베트남<땀 감> 설화들을 양국 간 가족문화의 공통분모를 염두에

두고 공통점, 차이점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설화를 활용한 다문화 가정의 상호문화 소통과 이해 요소들을 살펴 보았다. 설화를 통해 학습된 남녀 애정, 형제애, 자매애, 부부애, 이복자매 갈등, 계모와의 갈등, 모성애, 혼사담, 가문의식 등의 양국 간 상호 가족문화를 잘 이해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합일된 자아정체성 확보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새로운 통합적 다문화 가정, 다문화 사회의 정착에 보다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중국과 베트남 설화 텍스트 사용에 있어서 원전을 이용하지 못한 점, 두 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 이론에 더 천착하지 못한 아쉬움과 부족함은 크다.

참고문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한국구비문학대계(1~9).
- 강등학 외,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8, 1~574쪽.
- 강종인, 「설화를 통해 본 중국과 한국의 사유 특성-상사목의 형상을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30, 2009, 39~56쪽.
- 강진옥, 「열녀전승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본 여성적 대응양상과 그 의미」, 『조선시대 열녀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월인, 2002, 56~118쪽.
- 김 철, 「『연행록』 중의 맹강녀 전설 기록 양상 소고」, 『민족문화연구』 63, 2014, 157~209쪽.
- 김환희, 「비교문학적 시각에서 본 <콩쥐팍쥐>의 기원과 특성」, 『비평과 전망』 8, 2004, 278~308쪽.
- 류경자, 「<박제상 설화>의 전승적 측면에 따른 성격과 의의」, 『한국민족문화』 46, 2013, 3~33쪽.
-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윤진 역,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한울, 2002, 1~164쪽.
- 무경 엮음 박희병 옮김, 『베트남의 신화와 전설』, 돌베개, 2000, 1~215쪽.
- 손경희, 정무룡, 「삼국시대 열녀형 설화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17, 2003, 127~176쪽.
- 윤승준, 「설화를 통해 본 아시아인의 가치관」, 『동양학』 8, 2001.
- 양민정, 「민담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12(4),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 2009, 307~331쪽.
- 양민정, 「효부 설화를 활용한 결혼이주 여성의 가족의식 교육방안 연구」, 『세계문학비교연구』 37, 2011, 123~148쪽.
- 양민정, 「다문화교육 관점의 여성설화의 서사적 전통 연구」, 『외국문학연구』 57, 한국외국어대 외국문학연구소, 2015, 247~271쪽.
- 이민수 역 『삼국유사』 권1, '김(박)제상', 을유문화사, 1984.
- 장덕순, 『설화문학개설』, 이우출판사, 1975, 1~337쪽.
- 전혜경, 김근태, 「다문화 사회의 이해를 위한 한국-베트남 설화에 나타난 민족성 연구」, 『아세아고대학』 23, 2010, 725~770쪽.
- 전혜경, 「한국-베트남 설화에 나타난 여성상 및 기층의식 비교연구」, 『베트남연구』

9, 2009, 129~151쪽.

조홍윤, 「<등나무전설>에 형상화된 형제 갈등의 원형 연구」, 『겨레어문학』 57, 겨레어문학회, 2016.

조동일,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80, 1~304쪽.

조희웅, 『한국설화의 유형』, 일조각, 1996, 1~372쪽.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1~580쪽.

최혜진, 「다문화시대의 설화 교육 시론」, 『문학교육학』 26, 2008, 255~277쪽.

Le Chi Que, 「베트남 전설의 양상」, 『비교민속학』 18, 2000, 53~60쪽.

ABSTRACT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using folk tales
-Focused on Korea, China and Vietnam -

Yang, Min-Jung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coexist multicultural families that form a new home paradigm in Korea. Mutual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among the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key to the integration and settlement of multicultural society.

The significance of the folktale education lies in cultivating a healthy multicultural family consciousness that respects mutual equality and difference while minimizing recognition gap between mainstream and other in the various spectrum of multiculturalism.

In this paper, we discusse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using folk tales. I tried to look into the tale of China and Vietnam, which are the most common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ir relationship with Korea. First, I examined the significance of folktale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Next, I examined the folktales that seem to show similarities between Korea - China and Korea - Vietnam which can examine aspects of family consciousness between the two countries.

Although they have similar narratives, family consciousness and family culture of both countries showe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nd mutual cultural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elements of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were found. Family consciousness could be summarized by aspects such as affection, brotherhood, sisterhood, conjugal affection, conflict with half sister and stepmother, maternity, and family consciousness.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 study of the use of narrative in the viewpoint of multiculturalism.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y, Korean, Chinese, Vietnamese folktales, family consciousness, marriage

논문투고일 : 2018.01.18
심사완료일 : 2018.02.05
게재확정일 : 2018.02.13